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11월 25일(금)

---(음력 11월 2일)---

Пятница

25 ноября 2022г.

№ 46 (1201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의 마지막 일요일은 러시아에서 어머니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티몹스코예에서 가스 폭발 참사

지난 11월 19일(토) 티몹스코예 마을 비블리오체츠나야 6a 주택단지에서 가정용 가스 폭발로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했다.

긴급 구조대가 출동한 가운데 11월 21일 기준 사망자는 10명이고 이들 중 4명이 아동들이다. 이 폭발 사고는 러시아 연방 조사위원회가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현재도 잔해 속 매몰자를 찾는 중이다. 티몹스코예 마을 참사에 희생자들을 향한 애도의 물결이 전해지는 가운데 사할린주 마을과 도시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비통의 촛불'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할린의 약 1천 가구가 첫 아이 출생으로 일시 보조금을 받다

올 초부터 지역 예산에서 사할린의 가정들에게 5천만 루블리가 책정된 가운데 '주민통계학'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다.

첫 아이가 출생한 사할린의 가정들이 약 5만5천 루블리의 일시금을 받고 있다.

사할린주에서 태어났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할린과 쿠릴의 주민들이 지원 정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은 최소 사할린주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된다.

"사할린주 정부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할린에서는 자녀가 출생하는 중요한 시기에 사할린 주민들이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 50여 개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수당을 받기 위한 최대한의 편리한 조건을 조성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수당을 받기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고스우슬루기(국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현 거주지 사회지원센터의 담당 부서를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고 사회복지부 장관 올가 오를로바가 보조금 수령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사할린 지역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극동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체에서도 가장 발전된 분야 중 하나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연금 수급자, 장애인, 다른 영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제공되고 있다.

'주민통계학'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첫 자녀를 위한 수당이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3세 이하의 첫 자녀를 위한 수당이 매달 지급되고 있다. 다자녀 가정들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또는 건축 시 일시금으로 2백만 루블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대학생 가정의 출산 지원,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지원한다.

사할린주 사회복지부를 통해 200여 개의 지원책이 지역 모든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고, 2022년에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170억 루블리 이상이 배정되어 있다.

친애하는 여러분

11월의 마지막 일요일(27일)은 어머니의 날로서 우리에게 가장 다정한 감성을 일깨워주는 기념일입니다. 이날 우리는 바쁜 일상을 멈추고, 이 세상을 선사한 어머니에게 감사의 말들을 전합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태어나 걸음을 배우고, 첫 단어를 말하고, 학교에 들어가,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삶의 각기 다양한 단계들에서 자녀를 돌봐주십니다.

어머니의 일상적인 일에는 책임감과, 헌신과 다함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내십니다.

집안일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에서의 사회활동에도 성공적으로 일을 잘 해내십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영원히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와 거리가 멀어져도 우리는 어머니의 돌봄과 따사로운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면전에서 그 어느 연령층이든 우리는 다 아가 됩니다.

어머니의 행복은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건강한 데 있습니다.

사할린주에서는 출산 시 50개의 사회적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적 지원의 질과 가용성을 향상시키며, 유치원과 학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자주 울려 퍼지고, 어머니들의 미소가 꽃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성은 사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소중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기쁨이 넘치고, 건강하시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머니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 지역 예산안 지지

11월 18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2023년과 2024년, 2025년의 계획 기간 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 의회위원을 비롯한 연방, 주, 지방 정부 대표들과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앞서 주요 예산안 기획이 사할린주 예산 공개 사이트에 게시되어 누구든 자신의 제안을 편집자에게 보낼 수도 있다.

18개 지방의 주민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생방송되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이 계속될 거란 망상을 키울 필요는 없다. 사할린 주정부는 경제 개편과 다양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2023년 - 2025년의 예산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예산안은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안정적인 예산 체계 유지를 보장하고 있다. 주요 예산안의 기획이 사회적 명목임을 강조하고 싶다. 사할린주는 주민 지원 프로그램의 양과 질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선두 지역 중 하나다. 모든 기획이 향후 3년간 시행될 전망이다. 자녀가 있는 가정, 고령층,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의 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방침도 변함없다. 우리는 사회적 제반시설을 강화하고, 교육과 보건, 문화와 스포츠 분야와 공동경제의 대규모 기획을 시행하고, 주택 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주정부의 알렉세이 벨리 총재가 말했다.

사할린주 재정부 올가 로파티나 장관에 따르면 2023년 주 예산 총수익액은 1,320억 루블리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1,265억 루블리는 세수 및 세수 외 수익이다. 이는 2022년 초기 예산보다 약 60억 루블리 정도가 더 많은 것이 주목된다. 2024년의 예산은 1,151억 루블리, 2025년은 1,121억 루블리에 이른다. 따라서 주 예산의 지출 규모도 2023년에는 1,531억 루블리, 2024년에 1,309억 루블리, 2025년에는 1,283억 루블리로 추산하고 있다. 지출의 절반이 내년에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위해 쓰이며, 연방예산 자금을 고려해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 지원책으로 165억 루블리가 배정된다. 교육개발을 위해서는 219억루블리가 배정됐다.

이에 공청회 참석자들 대부분이 예산 계획안을 지지했다.

새고려신문 2023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할린주 사회원 설립10주년 기념

사회원 10주년을 기념해 11월 18일(금) '스틀리짜' 쇼핑·비즈니스 센터에서 <사회적 선도 박람회>가 열렸다. 20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획들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을 위한 활동교실과 게임, 퀴즈대회를 조성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표명하며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한 어머니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고, 소비에트 군인들에 대한 기억을 영구히 하는 일을 하며, 국민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회원은 우리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국민기구입니다. 정부와 사회 간 폭넓은 이해로 관계를 조화롭게 하며, 각기 다른 전통을 존중하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스런 문제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함께 찾기 위해 주민들과 논의하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주지사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산하 시민사회의 발전 및 인권위원회에 들어간 사회원의 블라디미르 이콘니코브 위원장에게 축하했다.

블라디미르 이콘니코브는 "우리는 사회에서 관계의 조화 및 정부와 사회 간의 대화 구축을 위해 주어진 과제 수행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공동의 사업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유익을 줄 거라 확신한다. 우리 사회 활동가들은 항상 중요한 사건들 중심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원은 지역 주민과 언론, 기업, 사회적 지원, 보건, 교육, 주택 공공사업 등 많은 문제들에 따른 비영리 단체들과 상호협력을 하고 있다.

사회적 감사가 지역의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던 것은 선거운동 시기에 전 선거구에서 사회 활동가들이 참관인으로 활동했으며 그 덕분에 지역 선거가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또한 이날 여러 활동교실이 열린 가운데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개최한 한지 체험교실이 큰 관심을 끌었다.

2022 KBS 한민족 체험수기 대상작

눈물의 섬, 사할린

김경순

(전호의 계속)

그런데 점쟁이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아들이 살아있다.'고 했다요.

우리들이 여섯 살 - 열두 살 무렵 겨울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우리들의 젖은 신발을 손으로 만지시며 부엌에 따뜻한 자리에 마르라고 올려 놓으시고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젖은 신발은 내가 말려주는데 큰오빠 신발은 누가 말려줄까?... 다 떨어져서 발가락이 쑥쑥 나오는데 짝신이라도 누가 말려줬으면..." 하시며 걱정하셨어요.

한번은 또 이러한 말을 들은 후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지금은 우리 나이가 열두 살이 됐는데 큰오빠 나이는 지금쯤 한 20세가 됐잖아요?" 라고 물으니 어머니는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갔어도, 내 아들이 컸어도 나의 눈앞에는 언제나 작은 아이로만 보인다. 이별하던 때 어린 시절의 아들... 그 모습뿐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5남매는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부모님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밭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일하셨어요. 억척스럽게 일만 하셨어요. 단 한 번도 구경이나, 여행이나, 명절 때도 쉬시는 날이 없었어요.

58년도 - 65년도까지는 8월 15일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의 날'이라 해서 매년 이날에 운동장에서 큰 명절을 썼어요. 씨름도 하고, 그네도 뛰고, 달음박질도 하

고, 그 외에도 재미있는 놀이가 하루종일 이어졌어요. 저의 집이 운동장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부모님은 한 번도 운동장을 구경하러 가지 않았어요. 잔치나, 생일이

나, 초상집, 그리고 꼭 인사를 해야 할 데만 찾아가셨어요. 놀리는 안 가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놀라서 "어머니가 어떻게 행복해요? 8월 15일 운동 구경도, 비행기도, 기차도 한 번 안 타고, 여행도 한 번 안 한 사람인데요." 어머니는 "구경하며 놀러 다닌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행복은 자식이 부모 앞서 안 가고, 병신 자식 없고, 자식들이 아프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게 살며, 자식들이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부모 욕 안 먹이고, 형제간 화목하게 사는 게 행복이란단. 큰아들과의 리별은, 그때 세월이 그래서 그랬지..."라고 하셨어요.

둘째 오빠가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큰 땅으로 떠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절대, 멀리 떠나보내지 못한다. 집 문턱만 나서면 고생인데... 아서라, 아들 하나 고생시키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너희들만은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 날 멀리



떠나지 말아라."시며 한사코 안 보냈어요.

저의 형제들은 모두가 다 착해요. 오빠도 너무 착해서 그토록 하고 싶은 공부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할 수 없이 대학을 포기했어요.

어머니는 때로 여러 속담들을 설명해주시곤 했어요.

'백지장도 마주 들면 수월하다. - 쉬운 일도 도와주면 수월해진다.'

'문전 나그네 혼연 대접 - 문밖에 사람이 가난해 보여도 오면 푸짐하게 대접하라.'라는 뜻을 설명하시며 그러려면 부지런히 일해서 서로 갈라 먹으라고 하셨어요.

"좋은 사람과 살거나, 사귀기는 수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평판이 나쁜 사람과 살거나 사귀기는 어려우니, 그런 사람과 사귀는 게 좋은 일이다. 가난한 사람을 없수이 보지 말아라."

하여튼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웃 사람들이 '너의 부모님은 양반들이니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다.'라고 하시며 종종 부모님께 소담 하러 오셨어요.

사할린의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인도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들의 삶이 우리와 비슷하니까요.

한 번은 제가 어머니에게 재미있는 인도 영화가 왔으니 같이 가시자니까 어머니는 "조선서 나의 삶이 인도 영화보다 더 기막힌 삶을 살았다. 안 보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니 그 내용은 저의 어머니의 삶과 같았어요. 아들을 빼앗고, 며느리를 내쫓는데 며느리는 울면서 아들을 낳고 집을 나섰어요. 이것을 보고 저도 그자리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아차, 내가 어머니를 안 모시고 온 것이 다행이다. 어머니께서 보셨으면 또 옛날의 아들이 떠올라서 우셨을 텐데...'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가신 박노학 아저씨가 육십 몇 년도에 일본에 살고 계셨어요. 그분은 사할린 한인들이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애타게 버티고 사는가를 잘 아는 분이셨어요.

그분께서 일본에 있는 자기 앞으로 편지와 한국 주소를 써서 보내면 한국으로 꼭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때 여러 분들이 일본을 거쳐 편지를 받았대요. 그래서 어머니도 일본에 계시는 박노학 아저씨께 한국 주소와 편지를 여러 번 보내셨어요. 그래도 한 번도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 6.25전쟁 때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서도 편지는 계속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아들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그날은 우리집이 초상집 같았어요. 울며불며 온 식구가 '큰 아들이 살아있다! 큰오빠가 살아있다!' 외쳤어요 그때부터 길터질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다음 호에 계속)

이 모 저 모

2022년 11월, 사할린주에 최우수 교내 식당 선정

사할린주 교육부가 '2022년 최우수 학교 식당' 전국 경연에 사할린을 대표할 학교를 선정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나제즈다(소망)' 특수교육 학교가 지역 대표로 선발된 가운데 이 학교는 25개 학교들 중 최고였다. 사할린주의 25개 학교들이 선발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 교육부는 급식시설의 상태를 점검하고, 식자재 창고와 배식시설을 살펴보고, 상차림과 직원들의 자세를 평가하고, 요리를 맛보기도 했다. 거리낌 없는 심사 결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소망' 특수교육 학교의 식당을 최우수 교내 식당으로 선정했다. 이 학교는 시 교육 기관들과 경쟁에서도 우승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특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 학생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지내는 만큼 이들에게 집중적 관심과 배려와 풍부한 맛과 건강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급식은 교육적 공동작업과 학교 식당 직원들의 매일 꼼꼼하고도 중요한 작업이다. 우리 학교에는 조리의 총지휘자부터 요리사와 기술 직원에 이르기까지 고급 자격증을 지닌 책임감 있는 직원들이 있다. 이들은 학생들을 위해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준비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식당을 자주 '즐거움의 공간'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나제즈다' 학교의 올가 미할렌코와 교장이 말했다.

특수학교는 알루예와 예카테리나 세르게예브나 공급업체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식당 위생안전기준 활동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음식의 품질을 검사하는 학부모들이

돕고 있으며, 사할린주의 요식업체와 '사쿠라'레스토랑의 요리사 연합회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으로서 교육 기관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가정 요리의 기술 개발을 돕고, 건강식의 효능에 대해서도 설명해준다.

'교육'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 '현대적인 학교'기획에 따라 신축 학교 건물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 아늑하고 현대적인 식당이 문을 열게 되어 이를 위한 장비와 가구와 식기류들도 구비했다.

'2022년 우수 학교 식당' 전국 경연의 결승전이 우파에서 오는 11월21일(월)과 22일(화)에 개최됐다. '나제즈다' 특수교육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교내 급식에 따른 러시아의 '우수' 칭호를 얻기 위해 경쟁했다.

Лучшую школьную столовую выбра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оябре 2022 год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брали учреждение, которое представит острова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Лучшая школьная столовая-2022». Победителе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бора стала коррекционная школа «Надеж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на стала лидером среди 25 претендентов.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отборе подали 25 шко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миссия мин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ерила состояние помещений для приема пищи, заглянула в пищеблоки и на линии раздачи, оценила сервировку столов и внешний вид работников, а также продегустировала блюда. По итогам смотра безоговорочно лучшей признали столовую коррекционной школы «Надеж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Это учреждение стало победителем в соревновании городск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В нашей школе учатся особенные дети. Им требуется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и забота, в том числе полноценное вкусное и здоровое питание, так как они

находятся в школе целый день. Поэтому организация питания — ежедневная кропотливая и ответственная работа и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и персонала столовой. У нас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и ответственный персонал — от заведующей производством до поваров и техниче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Они готовят для детей не просто полезную, но и вкусную еду. Недаром в школе часто столовую называют «уголком удовольствия»,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школы «Надежда» Ольга Михаленкова.

Коррекционное учреждение работает с поставщиком ИП Валуева Е. С. Кроме того, в организации полноценной работы столовой помогли родители воспитанников школы, которые регулярно проверяют качество питания. А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рестораторов и кулинаров «Сакура» поддерживаю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в социализации учеников — помогают развивать навыки домашней кулинарии, а также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пользе здорового питания.

В 2020 году по проекту «Современная школ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коррекционная школа получила новое здание. Именно там открыли современную уютную столовую, для которой закупили оборудование, мебель и посуду.

Финал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ая школьная столовая-2022» пройдет в Уфе 21 и 22 ноября. Там коррекционная школа «Надежда» будет бороться за звание лучшей в России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питания для детей.

사할린 근로자들, 평균 근로임금 73,000 루블리 기대

사할린주의 구직자들이 월평균 임금 7만3천500루블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전체 평균 5만5천 루블리보다 1만8천 루블리가 더 높다고 이에 대한 자료를 '헤드헌터(HeadHunter)' 사이트가 공개했다. (8면에 계속)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전호의 계속)

제6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① ----- -----제5조제1항----- -----정착과 생활안정----- ----- ----- -----
<신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할린동포의 국내유족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제2항-----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여부----- ----- -----

사할린국립대 학생들, '꿈 같은 떡볶이' 만들기 체험

지난 19일(토)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꿈 같은 떡볶이' 요리 체험교실이 열렸다. 이번 체험교실은 단순히 떡볶이를 만들고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대한 모든 것' 기획의 마무리 행사로서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나오는 한국의 대표적인 떡볶이에 대한 지식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행사를 연 사할린국립대 역사·어문·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학장은 우선 떡볶이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해주었다. 4세기에 등장한 이 떡볶이는 간장으로 볶은 떡볶이로 궁중음식으로 알려져 있었고, 1938년까지만 해도 아무나, 어디에서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다. 1953년에는 마복림 할머니가 처음으로 고추장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떡볶이의 종류도 많이 다양하다. 라면 떡볶이, 국물 떡볶이, 기름 떡볶이, 간장 떡볶이, 치즈 떡볶이, 카레 떡볶이, 짜장 떡볶이, 즉석 떡볶이, 떡꼬치, 까르보나라 떡볶이, 로제 떡볶이 등이다.

떡볶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날 떡볶이가 처음 나왔던 노래도 소개되었다. '오빠는 풍각쟁이'란 노래는 1938년에 박항림 가수가 쓴 작품이다. 이 노래 가사가 정말 흥미롭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머,
오빠는 심술쟁이야, 머
난 몰라이 난 몰라이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거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오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구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깡쟁이야'

떡볶이에 대한 소개가 끝난 후 30여 명의 행사 참가자들이 박경준(주이산가족협회 회장) 선생님과 한국 교민 김민경 선생님의 지도 아래 고추장 떡볶이 만들기에 나섰다.

매우 매운 떡볶이, 덜 매운 떡볶이 등, 무엇보다 자기 손으로 만든 떡볶이가 가장 맛있었다.

행사는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한 한국 요리에 대한 퀴즈로 막을 내렸다.

'꿈 같은 떡볶이'는 사할린국립대 역사·어문·동양학 대학 동양학부가 주최, 주유즈 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의 후원 아래 진행되었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지난 10월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 방안' 국제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아래에 최경욱 교수의 발표문을 게재한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인과 대한민국 국적과의 관계

최경욱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은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역임

(전호의 계속)

동조 2항에서는, "여타의 연방법과 국제조약에 명시되지 않는 한, 러시아연방 국민의 외국국적 보유로 인하여 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지 않으며, 러시아국민으로서의 의무사항이 면제되지 않는다." 한편 시민법 제6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6조 1항에 따르면, "외국국적을 보유한 러시아연방 국민은 국제조약이나 연방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러시아 국민인 것으로 간주한다."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국민의 타국적 취득으로 인하여 러시아연방 국적이 상실되지 않는다." 또한 제13조 1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절차를 통하여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방법이나 국제조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들을 잘 살펴보면, 한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의 복수국적 관련 조약을 체결하여, 강제동원된 사할린 한인 및 그 후손들에게 복수국적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복수국적조약을 체결하여 현재 시행 중이며, 투르크메니스탄과는 복수국적조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와의 양해를 통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할린 한인 2세와 3세에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 국적자는 한국 국적 취득 과정에서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서는 국적법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4.> 예외적인 경우로 동조 제4항에서,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제5항,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동 제10조 4항과 5항의 개정을 통하여 사할린 한인 2세와 3세의 경우도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게다가 사할린 한인들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국적법의 개정이나 특례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재외동포법)의 활용

2008년 3월 14일자로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동 제2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재외동포의 범위는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도 포함되게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법령은 중국이나 일본 거주 동포들에게는 시행이 되고 있으나, 사할린 한인을 포함한 러시아 동포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령과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 동포법」을 연계하여 사할린 한인 2세 3세가 조부모나 부모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

려하면서, 사할린과의 연계성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이도 있다.

재외동포로 인정받게 되면, 취업이나 경제 활동 등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며, 또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의 경우 보훈급여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법령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인 2세들 중 귀국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할린 한인 1세를 부양하는 2세나 3세에게 직업교육이나 정착금, 특별보조금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사할린 동포법」에는 이러한 지원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재외동포법」과 「사할린 동포법」을 연계하여 줄 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III.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앞에서도 보아 왔듯이 어렵사리 제정된 「사할린 동포법」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은 단순히 영주귀국자를 위한 법일 뿐이다. 동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동 조 앞 구절에서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한다는 내용이 없어 장식적인 내용으로만 보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사할린 한인들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겪어야만 했던 고통들에 대한 보상은 일본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주국가로서, 내 국민에게 한국 정부가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영주귀국자에게만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1. 영주귀국 대상의 범위

영주귀국 대상자의 범위와 그 대상자 선정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 첫째, 앞서서도 한번 보았지만 1945년 8월 15일이란 기준은 한국이 해방된 날을 기준으로 일본 측이 그 책임의 한계선을 정한 날이거늘 현재까지도 이 날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그만큼 이들에 대하여 스스로의 책임은 없고 일본 책임만 있는 낡 재외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8월 16일 이후 태어난 사람은 사할린 동포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보상에만 기분을 맞춘 것이다. 그러므로 제2조 제1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할린 동포"란 '일제강점기로 사할린으로 건넌 당사자와 그 후손들과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과 그 후손들을 말한다'라고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반가족의 범위도 역시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즉 그 범위를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대상 범위를 최소한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정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제2의 이산가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여태까지도 고국을 떠나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는데, 또 다시 이산가족을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음호 계속)

17 декабря 11 ч. 00 м. состоится отчетно-перевыбор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ООСК.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Оргкомитет

2022년 12월 17일(토) 오전 11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주 한인협회 결산 및 선거 회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직준비위원회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ские краски московской осени

В Высшей школе культурной политики и управления в 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е (факультете) МГУ имени М.В. Ломоносова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фестиваля «Корейские краски московской осени», посвященного культурным связям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а также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декан факультета, профессор Елена Халипова выразила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культура всегда способствует объединению народов. «Изучение культуры и традиций других стран, в частности, азиатского региона и стра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итай, Корея, Япония)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тудентов факультета – будущих продюсеров, менеджеров в культуре, спорте, музейном и галерейном деле. Культура всегда сближала народы и помогала вести диалог между ними».

О близости культур двух народов говорили выступившие на открытии фестиваля спе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культур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факультета профессор Михаил Швыдкой, проректор МГУ, профессор Юрий Мазей, полномочный министр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и Дон 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Моисей Ким, экс-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во Вьетнаме Константин Внуков. В мероприятии так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иректор московского офиса Корейского фонда Лим Чол У,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Москов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госпожа Ли Ын Янг; президент LG Electronics в России и СНГ Ро Ёнг Нам.

В рамках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выставки был дан старт конкурсу видеороликов, посвященному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местам, связанным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в Москве. Перед гостями фестиваля выступили с музыкальными и танцевальными номерами студенты факультета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артисты, солист оперной труппы музыкального театра им. К.С. Станиславского и В.И. Немировича-Данченко Станислав Ли.

За минувшие 30 лет страны сумели накопить богатый опыт успеш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Факультет является активным участником двустороннего культу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программу обучения студентов Высшей школы с 2014 года входят учебные дисциплины «Искусство Кореи», «Культура и традиции Кореи» и факультатив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читаются курсы по искусству Китая, Индии, Японии и стран мусульманского востока. В 2018 году на базе факультета был основан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Его задача – преподавать студентам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ой, историей, экономикой, традициями и реалиями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Оставаясь вне политики, культура играет роль моста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и народами,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звитию этих стран.

Елена Анненкова,
пресс-служба факультета

Названо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всемирной летней универсиады 2027 года

Сеул, 21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Южнокорейский центральный регион Чхунчхон был назван хозяином летней всемирной универсиады 2027 года, в четвертый раз принимая в стран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мое раз в два года.

После голосования, проведенного на заседани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в Брюсселе, международная федерация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го спорта объявила мегаполис Чхунчхон победителем над штатом Северная Каролина США.

Принимающая сторона охватит города Тэджон и Седжон, а также две центральные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Чхунчхон.

Южная Корея ранее принимала летние всемирные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е игры в 1997 году (Муджу), 2003 году (Тэгу) и 2015 году (Кванджу).

Ожидается, что во всемирной универсиаде 2027 года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10 000 спортсменов и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из 150 стран, соревнующихся в 18 видах спорта.

Чхунчхон построил свою успешную заявку на обещаниях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со стороны центрального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авительств, а не на спонсорстве со стороны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Чхунчхон также предложил покрыть расходы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развивающихся стран и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ый и легкий въезд в страну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спортивн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принесет около 2,7 триллионов вон (2,05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США) в вид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олнового эффекта и привлечет около 2 миллионов посетителей из-за рубеж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 пройдут в Тэджоне, в 164 километрах к югу от Сеула,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городе Седжон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Мы очень рады выиграть заявку на провед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благодаря совместным усилиям Чхунчхона. Мы с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успешно», — сказал мэр Тэджона Ли Чан У.

Дни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3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В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е проходит цикл встреч «Дни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Перед кинопоказами, посвященными корейскому кинематографу с 1960-х годов до современности, выступают ведущие специалисты в обла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реди которых —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ПбГУ.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инолектория выступают РНБ, СПбГУ, форум «Диалог Россия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Киноцикл открылся показом фильма «Дочери аптекаря Кима» 1963 года, снятого по одноименному роману писательницы Пак Кённи. Киносеанс предваряла лекция доцента кафедры корееведения СПбГУ Инны Цой. Он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фильм культового 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Ю Хёнмока посвящен истории одной семьи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городка Тхонён, родного города автора книги. В кинокартине, которая на фестивале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сь в оригинале с русскими субтитрами, представлен очень колоритный, живой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аполненный диалектизмами. Кроме того, режиссер Ю Хёнмок демонстрирует новаторский подход к монтажу.

Фильм «Наш замороченный герой» 1992 года, представила доцент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еевед и переводчик Анастасия Гурьева.

«Дни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ройдут до начала декабря.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РНБ Владимир Гронский отметил, что сегодня западные страны ведут политику культуры отмены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достояния.

«Культура отмены в России неприемлема, потому что мы всегда готовы и рады познавать культуру других народов и стран»,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Гронский. — Мы приветствуем любое искусство любых стран, которо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общепризнанным человеческим ценностям».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выпускница СПбГУ Пак Чжу Ён призналась, что читальные залы библиотеки ей хорошо знакомы: в них она много работала над собственной диссертацией в период учебы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Не перестаю удивляться высокому интересу россиян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искусству. Я встречала много молод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открыли для себя Корею через музыку, искусство, кино и драму, а потом стали интересоваться языком, историей, традициями Кореи. У 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Россия также ассоциируется прежде всего с ее богатой культурой и искусством: корейцы обожают рус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балет, театр, музыку», — сказала госпожа Пак, выразив благодарность организаторам и лекторам



фестиваля. —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мы узнаем культуру друг друга, мы учимся лучше понимать друг друга. Я уверена, что наша дружба становится еще крепче. Считаю, что мероприятия кинолектория «Дни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 это прекрас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рейским кино прошлого и настоящего».

Проректор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и партнерству СПбГУ Анастасия Ярмош также упомянула важность познания культур через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искусства.

«Сегодня, смотря друг другу в глаза, мы открываем живой, очны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где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разделяющие интерес к другой культуре, проникнутся новыми жизненным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и, судьбами, особенностями характеров герое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 сказала Анастасия Ярмош, поздравив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с открытием кинолектория. «Вас ждут судьбы в кинематограф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ериода от 60-х годов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и тонкий, тактичный комментарий экспертов, которые станут проводниками в мир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Нам не всегда понятны особенности, черты и детали, и медиатор в лице эксперта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может раскрыть особую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образность».

В рамках кинолектория будут показаны также кинокартины «Таксист», «Пылающий» и «Паразиты».

Турбизнес после обвала отрасли уже подсчитывает доходы

Сеул, 22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Доходы в сфере путешествий, гостиничного бизнеса и авиаперевозок в Южной Корее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после отмены карантина. По мере роста спроса у авиакомпаний и отелей наблюдается значительное увеличение клиентов.

В Hana Tour, туристическом агентстве № 1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дажи выросли на 225,3 процента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до 37,4 миллиарда вон, сократив операционный убыток примерно на 5,7 миллиарда вон до 21,8 миллиарда вон (US\$1 = W1 401).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сего 9 637 человек отправились за границу через Hana Tour с июля по сентябрь, но в этом году их число выросло до 146 097. «Ожидается, что доходы в четвертом квартале будут еще лучше, потому что они будут отражать огромный рост числа туристов в Японию с тех пор, как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были сняты ограничения», — сказал сотрудник Hana Tour.

Такая же ситуация и с крупными отелями. Продажи отеля Shilla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выросли примерно на 40 процент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до 1,36 триллиона вон, в то время как операционная прибыль подскочила на 27,8 процента до 26,6 миллиарда вон благодаря возрождению свадеб и банкетов.

Доходы авиакомпаний также значительно возросли. Продажи Korean Air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выросли на 65 процент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о 3,67 триллиона вон, в то время как операционная прибыль подскочила на 91 процент до рекордных 839,2 миллиарда вон. Сотрудник Korean Air сказал: «Продажи пассажирских рейсов выросли примерно на 338 процент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после отмены карантина, что привело к значительному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людей, путешествующих за границу».

Спрос на авиаперевозки вернулся примерно к 60-70 процентам от уровня, существовавшего до пандемии.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2,5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соверши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рейсы на борт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еревозчиков, чт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с февраля 2020 год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дставлен план реализации «смелой инициативы» Юн Сок Ё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представило подробный план реализац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и нынешн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траны, известной как «смелая инициатива»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Она предполагает поддержку Пхеньяна в обмен на шаги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материалах министерства,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21 ноября, нынешня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будет стремиться побудить Пхеньян к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искать пути налаживания доверия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Это может быть достигнуто за счёт отказа Пхеньяна от всех вооружённых провокаций, развит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создания основы для воссоединения. При этом не исключается жёсткий ответ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провокации. План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остоит из трёх этапов, начиная с проектов по улучшению условий жизни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Пхеньяна к диалогу, и заканчивая активн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м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развитие которого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прогресса в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Пла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осредничество Сеула в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Вашингтоном и Пхеньяном, помощь в проведении переговоров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системы мира и ослаблении трансграничной напряжённости за счёт укрепления доверия в военной области. Ключевыми задачами Сеула в реализац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и являются нормализац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связей на основе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содействие в защите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подготовка к воссоединению.

В 2023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рейсов в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превысит уровень до пандемии

Количество рейсов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в летний сезон 2023 года превысит уровень до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Как сообщила 21 ноября компания-оператор аэропорта, решение об увеличении количества рейсов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и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остоявшейся недавно в Мельбурне. На летний сезон 2023 года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выделено 263.004 слота, что в 2,5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за летний период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Показатель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ожидается на 12,5% больше, чем в 2019 году, до вспышки COVID-19. Тогда аэропорту было выделено 233.650 слотов. Количество назначенных слотов означает количество взлётов и посадок в аэропорту в определённый период.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цены в РК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выросли на 5,9%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цены в РК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ыросли на 5,9%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из-за более высоких затрат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и питание вне дом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1 ноябр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Самая высокая потребительская инфляц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в провинции Чечжудо. Там цены выросли в среднем на 7%. Далее следуют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 6,9%. Рост цен в Сеуле и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составил 5,2%. Розничные продажи в целом по стране снизились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на 0,1%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Их максимальное снижение отмечено в городе Кванчжу – на 3,2%. Между тем,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розничные продажи выросли на 2,7%.

Фигуристка Ким Е Рим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о на пятом этапе серии Гран-при

Южнокорейская фигуристка Ким Е Рим завоевала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на пятом этапе серии Гран-пр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юза конькобежцев (ISU), состоявшемся 19 ноября в Саппоро. За две программы она набрал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04,49 балла - 72,22 балла за короткую программу и 132,27 балла за произво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а действующая чемпионка мира и бронзовая медалистка Олимпиады в Пекине Каори Сакамото из Японии, третьей стала её соотечественница Рион Сумиеси. Благодаря этой побед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портсменка смож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финале Гран-при,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декабре в итальянском Турине.

Группа BTS получила награду American Music Awards

Южнокорейская бойз-группа BTS пятый год подряд удостоивается премии American Music Awards (AMA). В этом году BTS получили награду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поп-дуэт/группа», обойдя таких мировых звёзд как Måneskin, Coldplay, Imagine Dragons, One Republic. Впервые группа BTS была отмечена AMA в 2018 году в номинации «Любимый артист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и после этого ежегодно попадала в списки победителе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оллектив удостоивается награды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поп-дуэт/группа» четыре года подряд. В прошлом коллектив победил в трёх номинациях - «Артист года», «Лучший поп-дуэт/группа», «Лучшая поп-песня».

(RKI)

Баллистика чучхе: КНДР получила ракету, способную поражать любую точку США

В Сеуле в ответ заговорили о создании своих атомных зарядов и возвращени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тактическ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Утром 18 ноябр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вела успешный запуск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которая способна поразить всю территорию США, включая Вашингтон и Нью-Йорк.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пуск был воспринят как еще один сигнал, показывающий, что Сеулу пора обзавестись собственным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тем более что КНДР планирует, похоже, новые испытания, уж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ядерных зарядов.

18 ноября в 10:15 минут по времени Кореи (мск +6) с аэродрома Сунан, что недалеко от Пхеньяна, стартовала МБР «Хвасон-17».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японских военных, она пролетела около тысячи километров и упала в эксклюзив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Японии в 11:23 (местное время, мск +6), то есть ракета преодолела тысячу километров за более чем за час, хотя система сумела развить скорость 22 Маха. Верхняя точка параболы полета была на высоте 6100 километров. Столь необычная высота объясняет, почем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МБР летала так долго: она была запущена по завышенной траектории, так называемой свечкой. Это делают, когда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ил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извести запуск по траектории в 30–45 градусов, обеспечивающей максимальную дальность полета.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это уже второй запуск данной ракеты — первый был произведен 3 ноября, тогда ракета смогла пройти этапы отделения первой и второй ступеней и достигла высоты 1920 километров, но потом двигатели не смогли работать в нужном режиме, и в итоге система упал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асчеты было несложно произвести, и в итог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сообщили, что в случае запуска по «обычной траектории» ракета улетела бы на 15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Хвасон-17» смогла бы поразить любую точку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части США. Если же КНДР имеет технологии разделяющихся боеголовок, вероятность чего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а,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и желании получила бы возможность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по важнейшим объектам в США, например, одновременно уничтожить Вашингтон и Нью-Йорк. Хот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 стали однозначно говорить о «полном успехе КНДР», но было признано,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ущественно продвинулась по части создания МБР» и успешно отработала технологию повторного входа боеголовок в атмосферу.

Напомним, что новейшая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ая ракета КНДР «Хвасон-17» впервые была показана миру на параде в Пхеньяне в октябре 2020 года. С тех пор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попыток запусков, но на них происходили те или иные проблемы. Но вот теперь, похож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ракетчики сумели, если говорить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сленге, «допилить» систему, устранив все недостатки.

Как можно было предположить, эта новость не обрадовала США, Японию и Южную Корею (РК), полити-

че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которых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обсуждал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провокации» и договорилось решительно на них реагировать. В ходе экстренного заседания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дал указание подчиненным проработать совместно с США возможные ответные меры. Кроме того, ВВС РК провели отработку ударов с истребителей пятого поколения F-35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управляемых бомб GBU-12 с лазерным наведением. Причем впервые это было сделано публично — в качестве ответа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запуск. Впрочем, в самой Южной Корее признали, что бомбы стали слабым ответом на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ую ракету, которая может нести несколько ядерных боеголовок.

Нынешний ракетный успех добавил пробле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олитикам, которые до сих пор спорят, как им эффектив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растущую ракетно-ядерную угрозу КНДР. В этой связи все громче в Сеуле звучат голоса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здания собственн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ЯО).

Министр объединения РК Квон Ён Се заявил, что он не исключ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созда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томных зарядов, возвращения американского тактическ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ли реализации концепции совмест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по всем опросам, около 60–70%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ддерживают идею создания собственного ЯО.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КНДР не остановится на нынешнем успехе, а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произведет испытания уже ядерных боезарядов. Так, 17 ноября глава МИД КНДР Чхве Сон Хи раскритиковала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ША,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которые сошлись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 ядерн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в регионе» со стороны Вашингтона. Министр Чхве пообещала, что Пхеньян активизирует свой ответ.

Судя по последовавшим событиям, слова «железной леди» Страны чучхе не были пустыми. Буквально через полтора часа после публикации ее заявления КНДР запустила баллистическую ракету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а теперь настала очередь системы, способной поражать любую точку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ША.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от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жидают ядерных взрывов, приготовления к которым уже давно проведены. Ожидается, что Пхеньян будет испытывать либо тактическое ЯО, либо миниатюрные боеголовки. С учетом успешного запуска новой МБР последнее выглядит актуальным.

Политологи опасаются,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итуация вокру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может резко накалиться, вплоть до возможности вооруж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Как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так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и пытаются взять друг друга «на испуг», не желая отступать и действуя в стиле повышения давления: «На ваш выстрел мы ответим взрывами, причем сразу тремя».

Олег Кирьянов (News.ru)

Урал готов реализовать городские проекты с участ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артнеров

Екатеринбург, 23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В рамках VI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Города России 2030: вызовы и действия» состоял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арафон городских проектов». Его цель — обмен опытом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вития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и создания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развития молодежи и науки, бизнеса и туризма.

Спикер марафона Почётный консу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ральск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Игорь Самкаев рассказал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етом Ураль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посетила делегац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Kogea Telecom. Этот визит положил начало созданию двух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развитие «Смарт — парковок» и создание Check Up центра.

«Суть умной парковки заключается в распознавании номерных знаков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управлении парковкой без присутствия обслуживающего персонала, обеспечении контроля доступа и статистики путем блокировки с помощью шлагбаума и терминала для оплаты. Система позволяет отправлять сигнал тревоги в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при обнаружении незаконно припаркова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редства,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превышение транспортным средством скорости, отслеживать свободные парковочные места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их дальнейшего

резервирования и последующей оплаты с помощью мобиль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Что касается Check Up центра, то ни для кого не секрет, что сегодн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медицина считается самой передовой в мире. В Коре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чти нет заболеваний, которое невозможно вылечить. Check Up — это самый эффективный способ проверить свое здоровье и выявить проблемы на раннем этапе за один день. Наличие такого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ысит уровень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и станет важным этапом в качественном лечении пациентов. Екатеринбург и Ураль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имеют выгодн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и отличные логистичес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Создание Check Up центра стало бы визитной карточкой региона и города, что привлекло бы гостей со всей России и из зарубежья. Уникальность и качество корейской медицины приобрело бы еще большую известность и признание. Корейс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есть чем поделиться с ураль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 резюмировал Игорь Самкаев.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очетный консул встретился с консулом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Сон Хен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роны выразили готовность содей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двусторонних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вердл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 Тымовском 7 семей, пострадавших после обрушения подъезда и пожара, получили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ейчас все силы брошены на то, чтобы найти людям подходящее жилье. Материальные выплаты помогут обустроиться семьям на новом месте. На Тымовский район обрушилась ужасная трагедия, и мы не бросим людей в беде. Все вопросы пострадавших решим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быстро и без лишней бюрократической волокиты,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сообщил глава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Эдуард Звада,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сегодня вручили уже 6 семьям из дома, где обрушился первый подъезд. Еще две семьи новоселье ждет 1 декабря, когда освободятся квартиры из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фонда. Сейчас они проживают у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 хороших условиях и готовы немного подождать. Также ключи получила семья из сгоревшего дома на улице Торговой. Для еще 7 семей погорельцев и 5 семей из обрушившегося подъезд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иск подходящих вариантов. Всего без крова осталась 21 семья.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пострадавшим семьям,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ли в обоих домах,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ыплатят по 500 тысяч рублей. 13 семьям из обрушившегося подъезда и еще 5 семьям погорельцев матер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уже поступила на счета.

– Одной жительнице Тымовского, которая получила тяжелые травмы, выплатя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400 тысяч рублей, когда она придет в себя. Под завалами погибли 10 человек. С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их родственники начали получать по 1 млн рублей,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Из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острадавшим положена выплата в размере 3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человека. Право на эту меру поддержки имеют 28 жильцов дома, где произошел взрыв. 26 человек уже получили выплату. Двое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за пределами области и получат ее по прибытии. Всем 17 жителям из сгоревшего дома средства уже поступили на счета.

Напомним, 19 ноября в Тымовском, в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м доме Библиотечный переулок, 6а, взорвался баллон с газом. Обрушился угловой подъезд. На место оперативно вылет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чью того же дня в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загорелся двухэтажный восьмиквартирный дом на улице Торговой, 23а. Всех людей оперативно эвакуировали. Для тех, кто остался без крыши над головой, организовали пункт времен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обеспеченный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на первое врем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более тысячи подъездов и входных групп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провели в 369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Итоги работы подве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ы провели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в дома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чти в 5 раз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удалось увеличить числ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х подъездов, в 19 раз – входных групп,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Традиционно самый большой объем выполне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443 подъезда и 198 входных групп в 218 домах.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Корсаков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где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119 подъездов и 15 входных групп в 59 домах. Замыкает тройку лидеров Холмский район. Там обновили 55 подъездов и 20 входных групп в 16 домах.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ы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должи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 Мы следили как шел ремонт в соседнем доме. Там в подъездах была такая разруха. А сейчас приятно заходить – чисто и свежо. На некоторых этажах жители разместили цветы. Ждем теперь, когда и до нас очередь дойдет, – подчеркнул Дмитрий Павлов, проживающий в Долинске.

Напомним, проведение текущего ремонта общего имущества собственников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является обязанностью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Однако в 2022 году по реш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было выделен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ддержки организациям. При этом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принимали только те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готовы вложить на условиях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редства собственников.

Вопросы по участию в программе можно оставлять по номеру горячей линии ЖКХ – 8(800)302-00-65 со стационарного телефона или *0065 с мобильного. Обратиться можно также, написав через WhatsApp: 8(924)884-42-03.

8 дворов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рил ход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илась масштабная программа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дворов. На островах пре-

образились 158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ажно, что с жителями посоветовались, какими они хотели бы видеть свои дворы, и учли пожелания людей.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рограмма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должится,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на улице Краснофлотской, 25/1 и 25/2, в Корсакове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1000 дв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десь заасфальтировали проезды и обустроили брусчатое покрытие на пешеходных зонах. По просьбе жителей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ыполнили озеленение территории, высадили дубы и клены, установили лавочки и урны.

– Мы попросили расширить проезд – у нас живет много автовладельцев. Наше пожелание учли. Но и пешеходов не обидели. Во дворе есть, где посидеть, отдохнуть, погулять с детьми,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Корсакова Татьяна.

Программа «1000 дв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хватила 6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Еще 2 двора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благодаря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е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глава региона также проверил качество капремонта улицы Парковой. Губернатору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ступали от жителей просьбы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эту дорогу. Участок до пересечения с улицей Дачной ведет к смотровой площадке, где располагается Сквер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й в 2021 году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Эта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ь включена в гостевой маршрут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На улице Парковой выполнили работы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кюветов и откосов, уложили водопропускные трубы. Дорожники произвели также отсыпку инерт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и уложили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е покрытие на участке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420 метров.

Более 200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благодаря господдержке улучшил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островные семьи получили до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квартиры или дома. Всего с начала года на эти цели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правлено более 4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большую часть выплат получили южносахалинцы. Общий размер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 172,6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овосель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отметили 89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 В новой квартире уютно и комфортно. Дети рады новому пространству, теперь им хватает места и для игр, и для учебы. Для нашей семьи это очень существенная помощь, – рассказала многодетная мама четверых детей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островитяне, имеющие троих и более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детей. Важное условие – мама или отец должны родиться и прожи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не менее 10 лет. Также льготу предоставляют людям, прожившим на островах как минимум 20 лет.

Выплата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у которых площадь жилья меньше установленной нормы на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пример, нормой является 14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ри покупке 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жилья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помощь в размере 50 процентов его стоимости, но не более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заслуживают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и поддержки. У родителей много повседневных забот и расходов, а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важны для благополучия всей семьи, для норм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детей. Благодаря этой поддержке, мы помогаем семьям существенно сэкономить соб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 на решение жилищного вопроса, – отметила областная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льга Орло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деля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поддержке семей с детьми. В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около 50 мер, помогающих островитянам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увереннее в такой важный период – при рождении детей.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действуют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на первенца, ежемесячное пособие на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до 3 лет, выплата на детей с 3 до 7 лет, областно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поддержка студенческих семей при рождении детей, направление женщин на ЭКО.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пришли в ФАПы на Южных Курилах

В двух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ах на Кунашире запустили SMART-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комплекс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организма. Аппаратура появилась в Головинно и Дубовом,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55-60 километрах от районного центра. Оснащение сельских медпунктов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роводи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Аппаратура позволяет точнее определять параметры здоровья. Комплекты включают два портативных анализатора для измерения холестерина и глюкозы в крови, тонометр для измерения артериального давления, электрокардиограф, индикатор внутриглазного давления,

спирограф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для проверки, экспресс-анализаторы.

ФАП в селе Головино был сда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Курильской программы». Здесь имеются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риема пациентов, проведения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процедур.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зволит проводи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еще более оперативно.

– Такая аппаратура нам очень нужна. Здесь есть все, чтобы провест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первого этапа, измерить давление, взять анализы. Комплекс компактный и очень удобный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 рассказала фельдшер ФАПа Головино Нина Терешко.

Нина Михайловна проработала в селе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лет. Не всегда условия для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были такими комфортными, но специалист осталась верна професс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ФАПа и поставку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стретила с большим воодушевлением. С ней в паре работает еще один фельдшер – Константин Романюк. Молодой специалист приехал на работу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 Несмотря на удаленность, стараемся создавать достой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работы. Та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является хорошим подспорьем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Второй комплект сегодня доставлен в ФАП Дубового,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лавный врач Южно-Курильской ЦРБ Валерий Шарыкин. – Преимущество эт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 том, что оно интегрировано в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систему. Фельдшер может прийти домой к пациенту, провести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обследования, они сразу же отображаются в компьютере. Тут же можно все распечатать и передать данные в центральную районную больницу.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ожно оператив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телемедицинскую консультацию.

Напомни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оступили 10 комплектов «Умный ФАП». Проект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в одной из номинаций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форуме «ОргЗдрав: лидеры отрасли».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SMART-оборудование установят в 13 ФАПах и амбулаториях. Также повыш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ы для селян связано с программ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в этом году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вух амбулаторий и 4 ФАПов.

600 километров электросетей построено 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Также в регионе провели модернизацию 520 трансформаторных подстанций. Такие цифры озвучили на совещании по вопросам прохождения зимнего периода 2022-2023 годов,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ег Попов.

Наибольший вклад 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модернизацию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носит ПАО «Сахалинэнерго». С 2018 года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обеспечения устойчивой работы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УРЭК),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мероприятия по 54 объектам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Основные ее направления – реконструкция воздушных линий, трансформаторных подстанций, закупка резервных источников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Программа рассчитана до 2032 года.

–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довольно непростые, особенно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Поэтому крайне важно обеспечить бесперебойную работу в сфере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в частности во время метелей.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по реконструкции ЛЭП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оборудования проводя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Это позволяет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зить число аварийных ситуаций. Мы взяли хороший темп в модернизации электросетей,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двигаться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отметил и.о.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ег Попов.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ы обеспечения устойчивой работы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комплекса региона планируется направить 3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этом году согласован подход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 затронет 13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круг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будет повышена надежность схемы выдачи мощности и связи между крупнейшими объектами генерации острова –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ТЭЦ-1, Ногликской ГЭС и Сахалинской ГРЭС-2. Это не только снижение рисков возникновения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связанных с повреждением объекто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но и комфорт для сотен тысяч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и.о. министра 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горь Бутовский.

Программой предусмотре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я десятков высоковольтных линий и подстанций. В этом году, например, специалисты завершили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высоковольтной линии по направлению Шахтерск – Бошняково,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ли объекты на направлении Смирных – Тымовское, а также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В декабре этого года будут завершены работы еще на нескольких высоковольтных линиях.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꿈의 목소리' 레즈네바가 들려주는 바로크 음악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함께내달 3, 4일 예술의전당서 공연

"레즈네바는 목소리 자체가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악기다. 젊음의 순수함과 함께 마치 크림 같은 환혼함을 안겨준다."(영국 월간 '오페라') "어떤 기악 연주자의 손가락도 레즈네바의 성대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영국 일간 가디언) 러시아 소프라노 율리아 레즈네바(33)의 노래는 폭풍처럼 강력하고 미풍처럼 달콤하다. 현존 최고의 모차르트와 로시니, 바로크 소프라노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그가 다음 달 3, 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함께 내한 무대를 연다. 2013년부터 세계 최고의 바로크 전문 아티스트와 악단들을 소개해온 '한화클래식'의 열 번째 무대다.



헨델과 비발디 등이 작곡한 후기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보여줄 소프라노 율리아 레즈네바.

레즈네바는 러시아에서도 변방으로 꼽히는 사할린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김치도 먹어보고 한국 옷가게에서 산 한국 스타일 옷도 입었다. 물리학자였던 아버지가 일찌감치 그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본 덕에 일곱 살 때 모스크바로 이사해

성악과 피아노를 배웠다. 그는 스무 살 때 핀란드의 미리암 헨린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하는 등 여러 콩쿠르를 휩쓸었다. 2010년 세계적 바로크 지휘자 마르크 민코프스키와 조반니 안토니에게 발탁된 뒤 청순한 이미지와 짙은 듯한 기교, 유연한 음성으로 세계무대를 누벼 왔다. 음역이 넓어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를 위해 작곡된 레퍼토리 대부분을



헨델과 비발디 등이 작곡한 후기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보여줄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 (제이에스바호프덕션 제공)

소화한다. 2018년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 첫 내한 무대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레즈네바는 "바로크 음악은 유연하고 자유로운 점에서 재즈를 닮았다. 노래할 때 모험을 하듯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점도 재즈를 닮은 매력"이라고 말했다.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는 1797년 창단된 뒤 이탈리아의 바로크 연주를 대표하는 악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08, 2015년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아노 카르미놀라와 함께 내한한 바 있다. 2008년 발매된 비발디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음반이 음반 저널 디 아파송 올해의 음반상을 수상

하는 등 공연과 음반 양쪽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공연에서 레즈네바는 헨델 '알렉산드로스' 중 '사랑스러운 고독이여'를 비롯해 후기 바로크의 오페라 3대장으로 불리는 헨델과 비발디, 니콜라 포르포라의 오페라 아리아들을 노래한다. 프로그램 마지막 곡으로 배치한 비발디 '그리셀다' 중 '두 줄기 바람이 몰아치고'는 2018년 서울시향과의 공연에서 '몰아치듯' 청중을 열광시킨 노래이기도 하다.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비발디 '현과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등 기악곡들도 감상할 수 있다. 2만~5만 원.

(출처: 동아일보)

[우리말로 깨닫다]

나와 너와 그



▲ 조현웅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우리말은 인칭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인칭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그녀 등은 원래 우리말에 있던 대명사가 아닙니다. 서양어를 번역하며 사용한 것이고, 그나마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말입니다. 그녀의 경우는 말의 구조조차 이상합니다. 그녀가 있으면, '그 남'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일본어에서 피(彼), 피녀(彼女)로 구분되고 있는 것에서 구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3인칭에 해당하는 말은 제3자를 높일 때 사용하는 '당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표현하거나 선생님을 표현할 때 '당신께서'라고 표현합니다. 2인칭의 당신과는 다른 말입니다. 1인칭과 2인칭이 있다고 해서 자주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른바 생각이 많습니니다. 제가 '이른바'라고 한 것은 서양어의 관점에서 보면 생략이지만 우리말의 입장에서 보면 없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없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오히려 첨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사의 경우도 말할 때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대명사보다는 명사나 고유명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엄마를 '그녀'라고 하면 어색합니다. 아니 이상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엄마는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수학을 가르칩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상한 한국어가 되었습니다.

1인칭 대명사로는 '나'가 있습니다. 2인칭의 경우는 '너'입니다. 우리말의 대명사 나와 너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너는 모음의 차이로 어사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와 너는 공통적이지만 조금 다른 것이 1인칭과 2인칭의 관계입니다. 나에는 '아'라는 모음이 있고, 너에는 '어'라는 모음이 있음도 흥미롭습니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 모음의 어감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한 속담입니다. 밝은 모음의 느낌과 어두운 모음의 느낌이 다르다는 설명이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비슷한 표현도 말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의 대표적인 말이 나와 너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가 맞고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둘 다 맞지만 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속담의 매력은 다르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나와 너는 1인칭과 2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이지만 서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 차이가 있음도 나타냅니다.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리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야 하는 사이인 것입니다. 다르다는 말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특별하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한자어 '별'이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부부유별이나 남녀유별에서 쓰는 말인데 본래의 의미는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나와 너는 3인칭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바로 '누'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는 '누구, 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누'는 3인칭의 대명사입니다. 나와 너 그리고 누는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대명사가 보여주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어진 사람이고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충북대 사할린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수상

'동아리아, 멘토링하자!' 최종평가회 우수동아리 선정

충북대 러시아어문학과 동아리 '사할린즈'는 18일 2022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 "동아리아, 멘토링하자!" 최종평가회에서 '우수동아리'에 선정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충북대 러시아어문학과 동아리 '사할린즈'는 올해 4월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돼 어버이날 기념행사, 사할린 한인사 특강, 한국 전통문화 체험, 인식개선 캠페인, '사할린즈 너만의 우표' 발행 등 사할린 한인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왼쪽부터 사할린즈 동아리 박민철, 김민규 학생. 사진=충북대 제공

이날 평가회 자리에서 충북대 '사할린즈' 동아리 대표 학생들은 그동안의 활동과 관련된 우수 사례들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민호 사할린즈 회장(러시아 언어문화학과 2학년)은 "사할린 영주귀국주민 한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닿아서 감사하다. 작은 활동들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사할린 한인들의 현실과 사할린 한인사를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 영주귀국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앞으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2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 "동아리아, 멘토링하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DGB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한 사업으로 대학생 멘토 풀(MENTO POOL) 확대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전국 대학생 동아리를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지원금을 지원했다.

[베리타스알파]

안산시, (주)에이텍으로부터 사할린 동포 위한 김장김치 5천 포기 기탁 받아



▲ 안산시, (주)에이텍으로부터 사할린 동포 위한 김장김치 5천 포기 기탁 받아

[경인투데이뉴스=장은희] 안산시는 지난 19일 (주)에이텍(대표 신승영)으로부터 사할린동포들이 모여 사는 고향마을을 위해 김장김치 5천 포기(10kg, 500박스)를 기탁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주)에이텍은 IT 토탈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높은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19년부터 사할린 동포를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주호춘 고향마을 노인회장은 "항상 어려운 시기에 잊지 않고 찾아줘서 감사하다"며 "후원받은 김장김치 덕분에 겨울을 걱정 없이 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할린 동포들이 귀국해 정착한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에는 현재 500가구 76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돼 수십 년 동안 잊혔다가 영주귀국사업으로 2000년 초부터 입주했다.

박종홍 노인복지과장은 "평균연령 79세의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이 고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주)에이텍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인투데이뉴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기대임금 수준에 따른 지역별 순위에서 1위인 추코트카 자치구는 10월 말 기준 월평균 기대임금이 9만2천 루블리이다. 이 같은 순위에서 상위 10위에 든 모스크바는 78,000루블리, 사할린이 73,500루블리,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구가 72,500루블리, 마가단주가 72,000루블리, 캄차트카 변경이 64,000루블리, 모스크바주가 60,500루블리, 네네츠크 자치구가 60,500루블리, 사하공화국이 60,000루블리, 상트페테르부르크가 59,000루블리이다. 반면 마리엘 공화국 주민들의 기대임금은 가장 낮은 35,500루블리였고, 프스코브주는 이보다 높은 36,000루블리, 키로브주도 36,000루블리를 기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Работники на Сахалине в среднем рассчитывают на зарплату в 73 тысячи руб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искатели в среднем рассчитывают на зарплату в 73,5 тыс. рублей. Это на 18 тысяч больше, чем в целом по России (55 тысяч рублей).

Такие данны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йта HeadHunter.

В рейтинге регионов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по уровню зарплатных ожиданий оказался 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 по итогам октября средняя желаемая зарплата составила там 92 тысячи рублей.

Также в топ-10 вошли Москва (78 тыс. руб.),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73,5 тыс. руб.), 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О (72,5 тыс. руб.),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72 тыс. руб.),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64 тыс. руб.),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60,5 тыс. руб.), Ненецкий АО (60,5 тыс. руб.), Республика Саха (60 тыс. руб.)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59 тысяч рублей.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самые низкие зарплатные ожидания оказались у жителей Марий Эл — 35,5 тысячи рублей. Чуть больше мечтают зарабатывать в П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 менее 36 тысячи, и Кировской области — чуть более 36 тысяч рублей.

<과학자가 말한다> 청년 포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11월 16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청소년 포럼 <과학자가 말한다>를 개최해 3일 동안 포럼 참가자들은 과학계의 최근 성과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가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이 개막식에서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환영사를 전하며 "프로그램과 강연자 목록을 파악하고 우리 청년들이 좀 부러웠습니다. 생활과 산업의 가장 활성화된 분야에서 과학의 최근 성과를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포럼이 우리 도시의 미래와 여러분 각자의 미래에 좋은 도움을 줄 겁니다."라고 했다.

포럼에서는 강연, 워크숍, 과학적 게임, 상호작용 퀴즈대회와 도전게임이 진행됐고, 과학 연구소 견학도 이뤄졌다.

모든 기획 행사는 의학, 유전공학, 우주 비행학, 동력공학, AR(증강 현실), VR(가상 현실), AI (인공 지능)공학, 인공 지능 자료 체계 등 실제적인 과학 연구의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진행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Ученый говори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Ученый говорит».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ех дней его участники знакомились с последни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науки, сообщает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 Я изучил программу и перечень спикеров,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немного завидую нашей молодежи. У вас есть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оследни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науки в самых актуальных сферах жизни и отраслях. Это будет хорошим вкладом в ваше личное будущее и завтрашний день нашего города, которому нужны молодые ученые и современные кадры, —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на открытии студентов и школьников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дин.

На форуме прошли лекции, практикумы, научные

баттлы, интерактивные викторины и квесты. Состоялась экскурсия в научную лабораторию.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екта посвящены разным сферам актуальны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касаются медицины, генетики, космонавтики, энергетики, AR-, VR-технолог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아방가르드' 센터의 수강생들, 1905년 러일전쟁의 역사 학습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러일 전쟁. 역사적 기억> 포럼을 개최했다.

'아방가르드' 학습방법 센터가 11월 15일(화) -17일(목)까지 진행된 <러일전쟁. 역사적 기억>(12세 이상 참가)포럼의 행사장이 되었다.

5일간 생활안정 수업을 받은 센터의 수강생들은 행사장에서 사할린주 문화부 대표들과 함께 책 저자이자 역사학자인 콘스탄틴 잘레스키의 흥미로운 강의를 들었다.

참석자들은 1905년 러일전쟁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질문을 던지며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

Курсанты центра "Авангард"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историей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1905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форум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Историческая память"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ий центр "Авангард" стал одной из площадок форума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Историческая память" (12+),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15 по 17 ноябр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ГБОУДО ОЦВВР.

На площадке курсанты центра, проходящие пятнадцатидневные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по ОБЖ, совместн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слушали интереснейшую лекцию (12+) от историка, автора книг Константина Залесского.

Ребята узнали много нового, задавали вопросы и провели конструктивную дискуссию по истории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1905 год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Открыта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ная компания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3 г.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